다가온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어야



新 불교사자성어

㉞ 좌탈입망(坐脫立亡)

'좌탈입망(坐脫立亡)'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앉은 채로도 죽고(육신을 벗어 버리고), 선 채로도 죽는다'는 뜻이다. 수행의 힘, 선정(禪定, 참선)의 힘이 쌓이고 쌓이면 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선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육신의 생사, 곧 죽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행자가 정진 수행을 하여 앉은 채로도 죽을 수 있고, 선 채로도 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대단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나라 때 등은봉(鄧隱峰, 생몰연대 미상) 선사는 거꾸로 서서 입적했다는 일화가 있다. 등은봉 선사는 평소에도 매우 괴팍했는데, 하루는 제자들에게 "고래(古來, 과거)로 서서 죽은 사람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제자들이 "있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도 있느냐?"하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고 답하자 등은봉 선사는 즉시 거꾸로 서서 물구나무서기 자세로 입적해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비를 하려고 해도 시신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등은봉 선사에겐 비구니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오라버니는 살아생전에도 괴팍한 짓만 하더니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애를 먹이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고 하면서 오빠의 시신을 손으로 '탁' 치니 그대로 넘어갔다고 한다.

또 임제의현(臨濟義顯, ?~866)의 도반인 보화(普化) 선사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 자리에서 관 속에 들어가서 열반했다고 한다. 〈임제록〉에도 나오는데, 그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 뚜껑에 못질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후 관을 열어보니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달랑달랑 울릴 뿐이었다고 한다.

이 두 선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 무근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이 과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각각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등은봉 선사 이야기는 생사대사(生死大事), 즉 '죽는 것이 큰 문제'라고 떠드는 안목 없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보화선사 이야기는 '공(空)'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근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방한암선사(1876~1951)는 1951년 음력 2월 15일 오대산 상원사에서 입적했는데, 벽에 기댄 채 입적했다. 이 장면이 마침 6.25동란 중 오대산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 정훈장교(김현기)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공개되었는데, 사진은 벽에 똑바로 기댄 채 입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약간 기울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좌탈입망은 전설처럼 회자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는 거의 없다. 생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수행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벽에 기댄 채 입적은 가능하다고 본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일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안(正眼), 정견이 없는 어리석은 수행자일 것이다. 수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른바 생체학적으로 죽음을 자유자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찾아와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죽음이 찾아오면 때가 되었음을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 그것이 수행자와 비수행자의 차이일 것이다.

'좌탈입망(坐脫立亡)'은 '좌탈(坐脫)'과 '입망(立亡)'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다. '좌(坐)'와 '입(立)'은 모두 '앉은 채', '선 채'라는 뜻이지만, '그 자리에서' 또는 '즉석'을 뜻한다. 선으로 해석하면 '즉석'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다(坐脫)' 혹은 '그 자리에서 번뇌 망상이 모두 없어졌다(立亡)'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다니…



격절록 강설

㉞ 제13칙 조수한국(棗樹漢國)

[古則과 着語]

擧, 棗樹問僧 "近離甚處" (常程) 僧云 "漢國" (也是) 樹云 "漢國天子還重佛法也無" (頭角生也) 僧云 "苦哉 賴值問著某甲 (觸着便作屎臭氣) 問著別人則禍生" (似則似 只恐龍頭蛇尾) 樹云 "作什麼" (也要問過) 僧云 "人尚不見有 何佛法可重" (已是禍門) 樹云 "闍黎受戒來多少時" (可惜許 拖泥帶水) 僧云 "二十夏" (忘前失後) 樹云 "大好不見有人" 便打 (郎當 葛藤愁殺人)

조수(棗樹)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일반적인 절차다.]

"한나라(漢國)에서 왔습니다." [역시 그렇지.]

"한나라 천자(漢國天子)는 불법을 중하게 여기는가?" [(말하면) 머리에 뿔이 난다.]

"(말하기) 괴롭습니다. 다행히도 제게 물으시는군요.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면 화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비슷하기는 비슷하다. (하지만) 단지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한다.]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사람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불법을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미 재앙의 문이 열렸다.]

"스님! 계 받은 지 얼마나 됐지?" [애석하구나! 자질구레하다(자질구레한 것도 묻는구먼).]

"20년 되었습니다." [앞도 잃고 뒤도 끊어졌다.]

"정말로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는 바로 쳤다. [시원찮다. 그러나 그 말이 몹시 사람을 걱정스럽게 하는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這僧棒即喫 要且去不再來 (旁不甘) 棗樹令雖行 爭奈無風起浪" (便打云 也有風浪 洪波浩渺 白浪滔天)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이 스님이 비록 방망이는 맞았지만 내쫓아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옆 사람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조수가 영(令, 법령)을 비록 행했을지라도,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선상을)치고 말했다. "역시 그래도 풍랑이 있다. 큰 파도가 한 없이 넓고 아득하며, 흰 물결이 하늘을 뒤덮었다.]

[評唱 1]

棗樹和尚 五代時 在湖南界上 劉王名儼居廣南 僭為漢國 這僧從彼中來. 古人出一叢林 入一保社 全以此事為念 不似今人只管打閧過日. 遇人問著 殊不辨端倪 面赫赤地 無言可對. 蓋謂無蘊藉底工夫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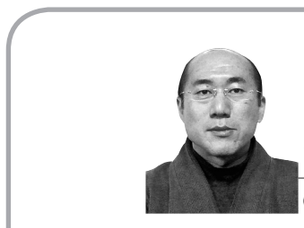
조수 화상은 오대(五代) 때 호남(湖南) 부근에 있었다. (그때) 유엄(劉儼)이라는 왕이 광남(廣南)에 있으면서 주제넘게 한나라(漢國)라고 참칭했는데, 이 스님이 바로 거기서 왔던 것이다.

고인은 총림에서 나와 어느 절(保社)에 들어가도 전적으로 이 일(此事)만을 생각했으니, 요즘 사람들이 단지 싸우기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과는 같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 물어보면 전혀 일의 실마리도 가려내지 못한 채 얼굴만 붉으락푸르락하니, (이런 놈들은) 무언으로 상대해도 된다(無言可對). 쌓은 공부가 없기 때문이다.

---

*조수(棗樹): 전등록 제24권에서는 당나라 때의 승려로 악주(鄂州) 황룡회기(黃龍晦機) 선사의 법손으로 전한다.

*유엄(劉儼, 895~948): 돌궐 사타부 출신의 유지원(劉知遠)을 뜻한다. 947년 후한의 초대 황제로 즉위해서 1년 만에 사망, 아들 유승우(931~950, 주왕이라 불림)가 제위함.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㉞ 이해의 길 14

현실 받아들일 때 고통 사라져

지난 호에서 마음과 현실의 간극이 집착을 낳고 이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삶이 괴로운 것은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 붓다의 진단이다. 따라서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집착의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涅槃, Nirvana)이라 하는데, 사성제의 세 번째인 멸성제(滅聖諦)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다.

그런데 집착을 버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던가. 우리가 단순히 집착을 없애야 한다는 당위(當爲) 차원에 머물지 않고 생각과 현실의 괴리를 성찰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집착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집착이 일어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아하, 그렇지.' 하고 나의 실존적인 문제로 인식될 때 비로소 생각과 현실의 간극은 조금씩 줄어들며 집착의 불은 꺼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생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에 있다. 먼저 현실이 마음을 쫓아가면 당장엔 괜찮을 것 같지만, 고통의 근본 원인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할 위험성이 크다. 흔히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젊다고 말하곤 한다. 요즘처럼 고령화된 사회에서 젊게 살려는 노력에 딴죽 걸 생각은 없지만, 이것이 지나쳐 집착으로 이어지면 고통이 뒤따른다. 여기에도 마음은 젊은데, 현실의 몸은 늙었다는 간극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주름을 제거해주는 보톡스나 성형수술은 늙은 몸이 젊은 마음을 따라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삶의 활력소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젊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 영원히 젊어지는 샘물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유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이 현실을 따라가면 어떨까? 젊은 마음이 늙은 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마음도 늙기 마련이다. 마음 역시 무상하기 때문이다. 이를 쿨하게 받아들이고 늙은 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지나간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늙음에는 젊음이 범접하기 힘든 삶의 의미들이 담겨있다.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를 어찌 젊음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젊음은 근육이 만들어낸 인연이지만, 늙음은 주름이 만들어낸 인연이다. 복서의 주름에는 링과의 인연이, 정치인의 주름에는 유권자와의 인연이, 농부의 주름에는 흙과의 인연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모두 지나온 삶의 소중한 역사다. 그 역사를 이끌고 온 주름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 것이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행복은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현실을 따라갈 때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흐름을 읽지 못하면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다. 마음이 과거권력이라면, 현실은 현재권력이다. 과거권력이 현재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를 쿨하게 받아들으면 단번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사성제의 네 번째인 팔정도(八正道)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젊어지는 샘물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신비의 약이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생명수 또한 없다. 그런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어리석은 믿음, 즉 미신(迷信)이다. 아들을 잃은 키사 고타미도 이런 믿음에 기초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수없이 찾아다녔다. 붓다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직접 느끼도록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면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냉정해보이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불교는 순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니다.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 붓다는 미신에서 정신(正信), 즉 바른 믿음으로 안내하는 길잡이(導師)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마가목」건강식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영가 찾는 법

명리학

초보반 | 대상 | 명리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과정 | 3개월(수료후 실전반 수강)
| 수강료 | 3개월 30만원 (월 10만원)

실전반 영가 찾는법 집중강의
| 대상 | 명리기초 완성자
| 과정 | 3개월
| 수강료 | 3개월 60만원 (월 20만원)

육효학

초급반 3개월 과정 (월 10만원)

실전반 3개월 과정 (월 20만원)

오시는 길
동작구 사당동 1039-13(사당역 8·9번 출구 200m)

백암역리원 02)597-1101